

세계인구고령화보고서 2020 요약본 (원문 12~20쪽 요약)

(World Population Ageing 2020 Highlights)

요약번역: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김빛나 연구원

bkim@asemgac.org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주거형태]

20세기 중반까지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노인의 주거형태는 자녀와의 동거였다. 194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사회보장과 연금 혜택이 확대되었고, 점차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축소하였다. 1980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노인의 독립적인 주거형태가 확산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형태도 확산되었다. 유럽 국가의 경우, 2008~2009년에 있었던 경제 침체로 인해 노인과 성인 자녀의 동거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실업, 불완전고용 및 성인으로 독립하는 기간이 늦어지면서 일어나게 된 결과이다. 유럽 내 노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양상은 남부유럽에서 더 두드러진다.

많은 경우 노인이 자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에 의존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자녀와의 동거는 상호 협력을 수반하며, 특히 부모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 실업이나 이혼 등 여러 이슈로 인한 개인적 어려움을 겪고 다시 부모의 집에 돌아온 경우 상호협력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인과 동거하는 성인 자녀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손자녀 돌봄 등의 측면에서 노인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호 동기부여는 노인에게도 해당되며,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건강이 악화된 노인의 경우 성인 자녀에게 돌봄 및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한다.

“효도” 및 “호혜”의 관점에서 성인 자녀가 고령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문화를 보이는 사회도 존재한다. 일본은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노년기 소득보장이 가능한 환경이지만, 전통적인 효 사상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동거하는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 전반에 보험 제도가 구축된 이후, 소득이나 가족의 돌봄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됨에 따라 효 문화가 축소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촌지역 내 전통 규범을 따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토지를 상속하는 경향이 남아있으나, 동시에 도시 지역에서도 여러 세대가 동거하는 주거형태

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난과 성인 자녀의 불안정한 고용 전망이 도심 지역 내 공동 거주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가족으로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형태]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노인은 대가족의 주거형태를 보이며, 가족구성원은 손자녀 및 조카까지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 대가족 주거형태의 잠재적 장점으로 동반자 관계 형성과 정서적 및 실용적 지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이 있다.

대가족의 한 유형으로 대를 건너뛴 조손가정의 거주형태(조부모와 손자녀만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주형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나 빈곤선 이하의 환경에서 많이 나타난다. 일례로 미국은 부모의 부재, 양육권 박탈, 교도소 수감, 지속적 학대 및 부모의 이른 사망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주거형태가 확대되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생활의 변화(이혼 및 한부모 가족 등) 또한 조손가정 확대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조손가정은 1980년대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영국과 북부 아일랜드의 경우 약물 남용과 수감된 부모의 증가가 원인이 되었다.

조손가정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카리브해 및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거형태다. 아시아와 카리브해 및 중앙 아메리카 지역은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와 해외 이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를 건너 뛴 거주형태가 확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정은 대체적으로 이주한 부모나 성인 자녀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내전이나 무력 분쟁으로 인해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조손가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조손가정으로 지낼 확률이 높다. 부룬디와 나미비아, 우간다는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30%이상의 여성노인이 조손가정으로 지냈으며, 같은 기간동안 남성노인은 15%만이 해당 주거형태로 거주했다.

[노인의 코로나19 사망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여파는 모두 다르다. 몇몇 국가는 바이러스 발생 초기 단계에 성공적으로 확산을 막았고(캄보디아, 중국, 태국, 베트남), 일부는 대규모 초기 발

병을 줄였으나 재확산 위험이 남아있으며(프랑스, 스페인, 터키), 일부는 지속적으로 높은 감염률을 경험하고 있다(브라질, 인도, 미국). 본 파트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협을 받은 세대는 누구이며, 위험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노인의 거주 국가 및 생활환경의 차이와 코로나19 위험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연령별 코로나19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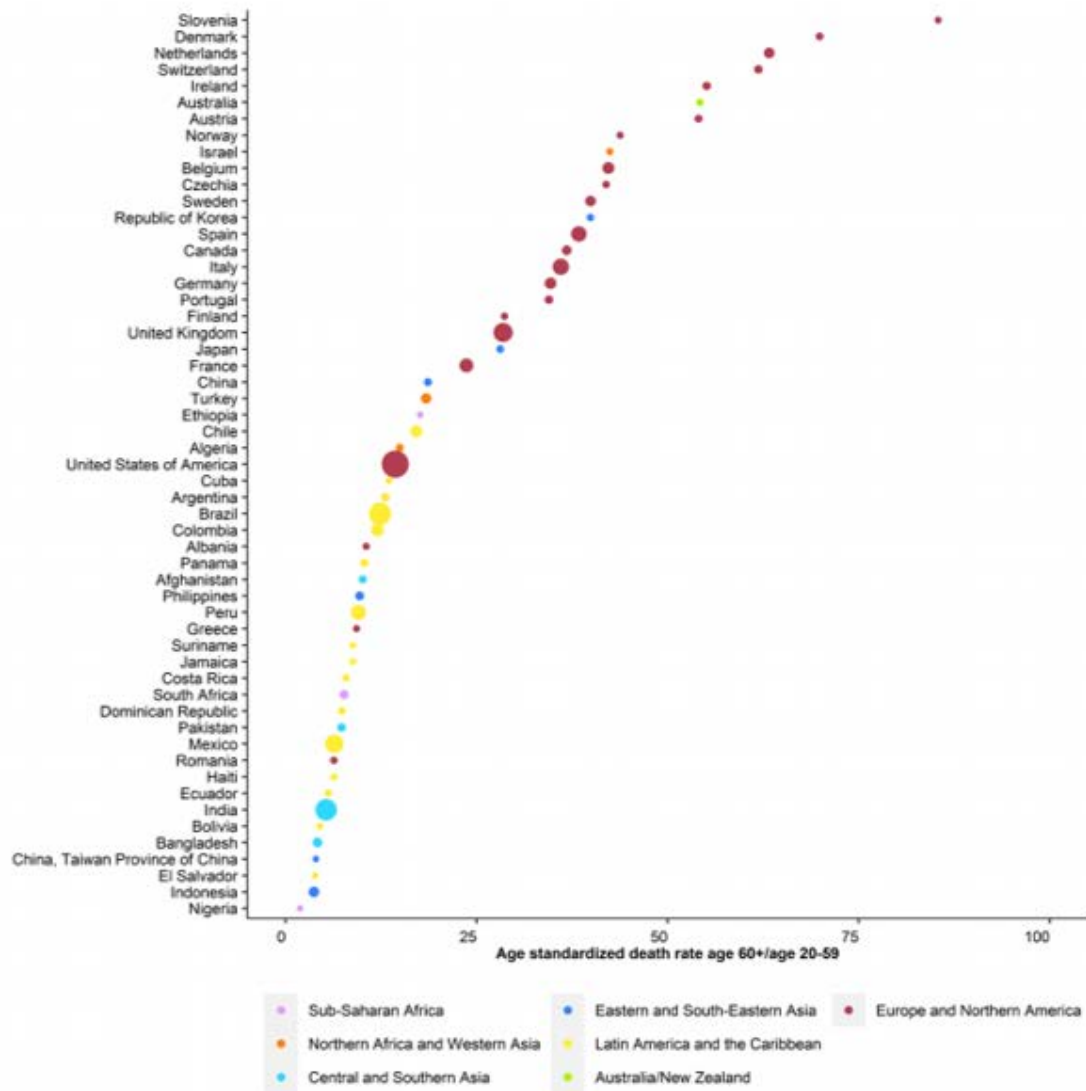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연령이다. 노인세대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1천 7백만 환자의 일차의료 기록¹을 활용한 영국의 대규모 코호트 조사에 따르면, 80대 이상 환자의 코로나19 사망위험은 50대 환자보다 약 20배 높았고, 40대 이하 환자에 비해 약 100배 높았다. 심혈관과 호흡기 및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근본적인 건강상태는 심각한 질환과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국의 조사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경험한 코로나19와 연령의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간 코로나19 사망위험 차이]

노인이 마주한 코로나19 사망위험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국가의 코로나19 통제 가능여부이다. 오랜 기간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한 국가에서 노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효과적인 봉쇄 및 완화조치를 시행한 국가들은 코로나19 전파율을 낮췄고, 노인의 코로나19 사망률 또한 낮았다.

<표6>은 연령표준화 코로나19 사망률 자료로, 20세에서 59세 대비 60세 이상의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모든 비율이 1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사망률 상승을 반영한다. 하지만 두 연령그룹 간 사망률 차이의 크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및 인도네시아는 노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젊은 세대에 비해 약 4배 더 높다. 반면, 벨기에, 대한민국 및 스페인은 노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젊은 세대에 비해 약 40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25% 이상) 유럽 등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긴 경우에 해당한다. 노인의 코로나19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약 10% 미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명이 확인되었다.

〈표6〉 연령표준화 코로나19 사망률, 20-59세 대비 60세 이상, 파악 가능한 국가 자료 중심, 2020



Sources: See sources for figure 5.

Notes: (1) The size of each dot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COVID-19 deaths reported in the country through August 2020. (2) See note for figure 5. (3) Before computing the ratios plotted here, COVID-19 death rates for both age groups (20-59 and 60+) were adjusted (or standardized) to account for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in the population age distribution, using the population of the world in 2020 as the standard.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¹ 이중 코로나 사망자는 1만 1천명임.